

이슬람의 부흥 어디까지 왔나?

박경서 수석연구원, 글로벌연구센터 (kspak@posri.re.kr)

목차

1. 이슬람 부흥의 배경
2. 경제활동의 이슬람화 현황과 전망
3. 이슬람 부흥의 불편한 진실
4. 시사점

Executive Summary

- **최근 이슬람 인구의 급증과 함께 이슬람 원리주의의 부활, 이슬람제도의 비이슬람 국가로의 확대 등 이슬람부흥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
 - 이슬람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여 1970년 전세계 인구의 15%에서 2050년에는 30%에 이르고 이후에는 기독교 인구를 추월할 것으로 전망(Pew Research Center)
 - 이슬람 부흥은 꾸란으로 돌아가자는 원리주의에 대한 공감대에서 출발하여 오일달러의 위력과 함께 금융부문과 할랄식품(허용식품) 등 소비영역으로 확산
- **경제부문의 이슬람 부흥은 금융시장과 소비시장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점차 생산부문 등 경제영역 전반으로 확산 전망**
 - 세계 이슬람금융 자산은 연평균 20% 가까이 증가하고 있으며, 영국으로 비롯한 일부 서방선진국에서는 이슬람 전용 은행이 설립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법이 개정되고 있으나 한국은 종교단체의 반발로 법개정 지연
 - 할랄식품은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식품이라고 알려지면서 비이슬람권으로 확산되어 시장규모가 2015년 전세계 식품시장의 15%인 1조 달러 기록
 - 경제활동의 이슬람화는 이슬람 인구 확산을 타고 시장경제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금융, 식품을 넘어 생산, 고용, 유통을 포함하는 경제영역 전반으로 확대될 전망
- **한편으로 이슬람의 부흥은 여러 한계와 문제점 내포**
 - 서방국가에서는 역내 이슬람세력과 문화적 충돌이 벌어지고 최근에는 자폭테러까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비용 증가
 - 이슬람금융 거래의 확산은 샤리아(이슬람 율법) 해석의 표준화 미흡, 상품 종류 및 서비스 다양성 부족 등의 한계와 이자금지 등 반시장적 가치관, 이슬람의 폭력성, 소득불균형 완화 실패 등 문제점 내포
- **이슬람지역 사업 진출은 이슬람 경제시스템의 제도적 미비와 정치경제적 불안으로 각종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 필요**
 -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샤리아를 일방적으로 적용하여 계약변경 요구를 하는 경우도 예상되기 때문에 샤리아 해석을 철저하게 검토함은 물론 문제 발생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이슬람 지도자의 높은 영향력을 감안하여 유력 지도자들과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함과 동시에 이슬람권 국가에 대한 취약한 정보력을 보완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중동사업에 강한 유럽업체와 합작진출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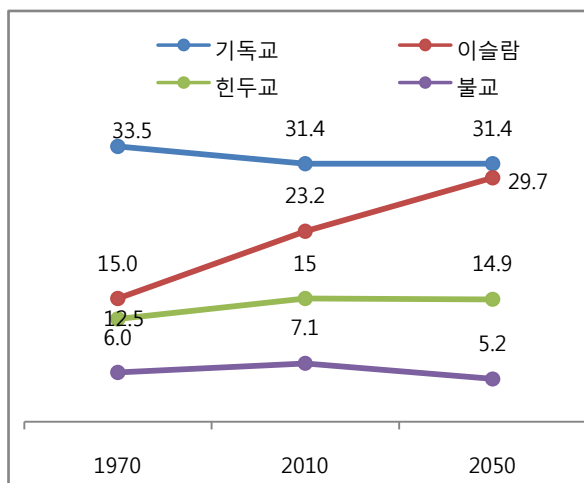
1. 이슬람 부흥의 배경

□ 최근 이슬람 인구의 급증과 함께 이슬람 원리주의의 부활, 이슬람 제도의 비이슬람권 국가로의 확대 등 이슬람 부흥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

○ 이슬람 인구가 급증하면서 유럽, 북미 등 비이슬람권에서도 이슬람 인구 비중이 빠르게 증가

- 이슬람 인구는 1970년 전세계 인구의 15%에서 2010년에는 25%로 늘어났으며 2050년에는 30%(약 28억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
- 반면 기독교인구는 정체되어 2050년에 31.4%를 기록한 후 이슬람 인구에 추월 당할 것으로 예상됨
- 세계적 종교 전문연구기관 Pew Research Center에 따르면 특히 유럽, 북미의 이슬람 인구가 급증하여 2050년에는 이 지역 이슬람 인구비중이 현재보다 약 2배 정도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

〈표 1〉 세계 4대 종교 인구 비중(%)



〈표 2〉 세계 권역별 이슬람 인구 분포(%)

	Year	무슬림 인구비중
Asia-Pacific	2010	24.3
	2050	29.5
MENA	2010	93
	2050	93.7
Europe	2010	5.9
	2050	10.2
North America	2010	1
	2050	2.4

자료: Pew Research Center, Religion & Public Life 2015

○ 이슬람 부흥을 주도하는 양대 흐름은 이슬람권내에서 일고 있는 꾸란으로 돌아가자는 원리주의 운동과 이슬람문화 및 제도의 비이슬람권으로의 확산임

- 개인적 신앙활동 측면에서는 이슬람 5행(신앙고백, 기도, 자선(zakat), 금식, 성지 순례)의 실천을 통해 이슬람인으로서 정체성을 강화하자는 일종의 이슬람 공동체 재건 운동

- 정치적으로는 종전 왕정체제를 폐지하고 신정체제로 복귀한 이란 혁명이 성공하자 꾸란의 원리에 의한 정치를 주장하는 정교일치 운동이 카타르 등 일부 주변국가로 확산
- 경제적으로는 이슬람권 내외에서 이자금지 및 실물거래 동반을 중심으로 하는 이슬람금융시스템과 이슬람율법에 따라 거래가 허용된 할랄식품(허용식품) 제도를 도입하는 국가 증가
- 한편 이슬람 근본주의 운동이 일부 급진 무장세력들에 의해 종족 또는 종파간의 갈등과 함께 반서구·반기독교, 나아가 이슬람의 세계화를 명목으로 집단테러 등 폭력행위로 나타나면서 이슬람 부흥현상에 우려의 목소리도 대두

□ 이슬람 부흥은 내부적 모순을 꾸란에서 해결하자는 공감대에서 출발하여 오일달러의 위력과 함께 시장경제의 모순에 대한 보완 가능성으로 확산

- 아랍지역은 서구 식민지배로부터 해방된 후 서구식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도입되었으나 기대했던 정치적 정의와 경제적 평등의 실현에 실패하면서 이슬람식 정치경제 시스템의 부활론 대두
 - 서구식 근대화 개혁과 경제개발 추진의 과실은 특권 엘리트 계층에게만 돌아갔고 일반 대중은 여전히 빈곤
 - 기존 정권들은 서방국가의 지원 하에 권위주의적이고 독재화 되어가고 서방과의 종속관계 및 의존도는 더욱 심화
- 막대한 오일달러의 경쟁적 유치와 글로벌 금융위기, 외환위기, 글로벌 경제침체 등 전반적인 시장경제의 한계에 대한 보완책으로 이슬람 경제시스템 부상
 - 21세기 들어 고유가로 축적된 중동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서방국가는 제도개선을 통해 이슬람금융 시스템 도입 적극 추진
 -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월스트리트로 대표되는 세계적인 금융황제들의 비윤리적 행동에 대한 반발로 이슬람금융의 윤리적 측면이 부각되면서 비이슬람권에서도 관심 증가

2. 경제활동의 이슬람화 현황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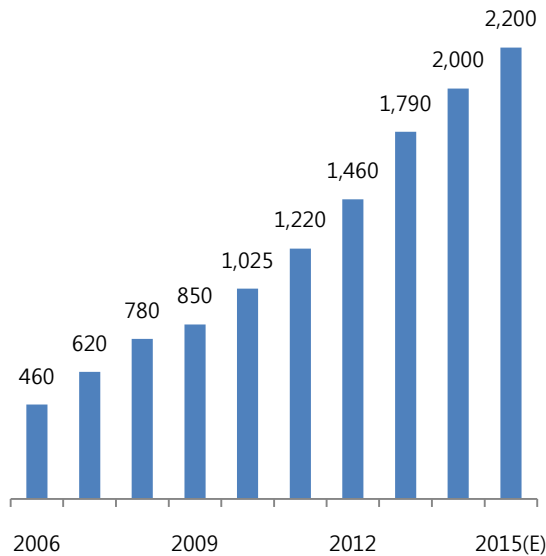
□ 경제부문의 이슬람화는 처음 금융부문에서 시작되어 점차 소비영역으로
이여지면서 할랄식품을 확산시킴

- 이슬람금융에서는 자본가에게 집중되는 부의 편중을 막기 위해 불로소득인
이자금 금지되며 도박, 투기 등 비도덕적 사업에 투자할 수도 없음
 - 따라서 부채조달 방식에 의한 금융기법은 위법이며 모든 거래는 실물거래가
수반되는 자기자본 조달방식의 형식으로 재구성되어야 함
 - 즉 금융기관과 투자자가 사업파트너로서 참여하여 이익과 손실을 공유하는
이윤분할의 원칙에 따라 향후 사업수익을 배분하게 됨
 - 초기 이슬람금융 상품은 단순한 구조의 은행상품으로 출발하였으나 점차 보험,
펀드, 채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품의 개발이 이루어져 거래되고 있음
- 할랄식품은 이슬람법에 따라 허용된 식품으로 돼지를 제외한 육류,
대부분의 야채, 과일, 곡류, 어류, 유제품 등이며 반드시
공식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할랄식품으로 거래될 수 있음
 - 할랄로 허용된 육류는 소, 양, 염소, 사슴, 닭, 오리, 새 등으로 반드시 이슬람
종교의식(Zabihah)에 따라 도살된 것이어야 함
 - 아직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인증기준이 마련되지 못해 현재 약 300여 개의
할랄 인증기관이 각자 기준에 의거 활동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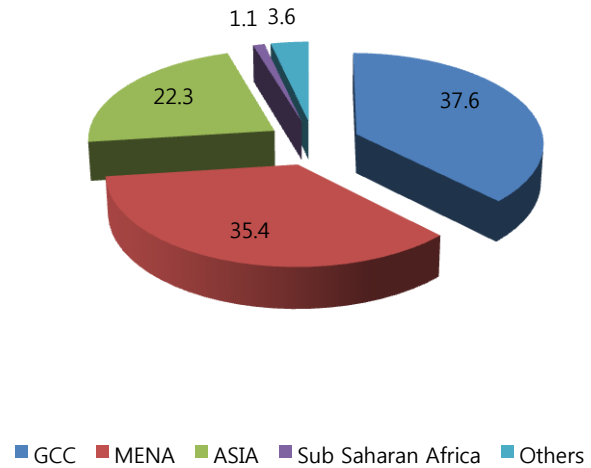
□ 1980년대 이후 이슬람 부흥이 확산되면서 이슬람금융 자산이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

- 전세계 이슬람금융 자산이 2006년 0.5조 달러에서 2015년 2.2조 달러를
기록하여 연평균 20% 가까이 증가
 - 글로벌 금융위기 및 재정위기를 비롯하여 중동의 정치적 불안 등을
거치면서도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지난 10년간 자산이 약 5배로 증가
- 이란, 수단 등은 이슬람은행 설립만 허용하는 등 중동 대부분의 국가는
이슬람금융 이용 활발
 - 세계 이슬람금융 총자산의 80%를 GCC(Gulf Cooperation Council)와
MENA 등 중동지역이 차지

〈표 3〉 이슬람금융 자산(\$10억)



〈표 4〉 지역별 이슬람금융 분포(%)



자료: TheCityUK, The UK: Leading Western Center for Islamic Finance, 2015. 11

○ 이슬람은행이 전체 이슬람금융 자산의 80%를 차지하고 이슬람채권(Sukuk), 펀드, 이슬람보험(Takaful) 등이 뒤따르고 있음

- 은행: 2015년 기준 전세계에 170여 개의 이슬람은행, 2,900여 개의 지점, 90여 개의 이슬람금융 창구가 운영
 - 서방국가도 이슬람은행 설립: 영국(20), 미국(10), 호주(4), 스위스(4), 프랑스(3)
- 채권(SUKUK): 전체의 10%에 불과 하지만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 2014년 수국 발행 규모 전년비 60% 증가한 2,950억 달러, 국가별로는 말련(70%), 카타르, UAE, 사우디 순
 - 유틸리티, 건설 등 인프라 수요에 필요한 자금의 상당금액을 수국을 통해 조달
- 펀드: 전년비 5% 증가한 760억 달러, 펀드 계좌 수는 1,100개로 10년 전 보다 4배 이상 증가
- 보험(TAKAFUL): 전년비 10% 증가한 210억 달러, 10년간 연평균 16% 증가

〈표 5〉 권역별 이슬람금융 자산 규모(2014, 10억 달러)

	은행자산	채권(Sukuk)	펀드	보험(Takaful)
GCC	564.2	95.5	33.5	9.0
MENA(exc. GCC)	633.7	0.1	0.3	7.7
ASIA	203.8	188.4	23.2	3.9
Sub-Sahara Africa	20.1	1.3	1.8	0.6
Others	54.4	9.4	17.0	0.3
Total	1476.2	294.7	75.8	21.4

자료: TheCityUK, The UK: Leading Western Center for Islamic Finance, 2015. 11

○ 주요국 동향을 보면 영국, 프랑스, 일본 등 금융선진국에서는 제도개선과 함께 이슬람금융업에 활발히 진출하고 있음

- 영국: 서구지역의 이슬람금융 허브를 목표로 관련법을 개정하는 등 유럽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슬람금융 도입 추진
 - 이슬람금융사무국(UKIFS) 설립, 10개 대학에 이슬람금융 교육과정 개설, 5개의 이슬람 전업은행 및 17개의 이슬람원도우 운영 등
- 프랑스: 유럽 내 가장 큰 이슬람 커뮤니티를 갖고 있으나 이슬람에 대한 보수적인 성향으로 2010년에야 관련법 국회 통과, 일부 은행이 이슬람지역에서 이슬람원도우를 운영
- 일본: 오일머니 유입을 통한 아시아 금융의 중심지 역할을 위해 2007년부터 관련법을 개정하고 2010년에는 수쿡도 발행
- 한국: 이슬람금융서비스위원회(IFSB)에 준회원으로 가입하고 관련법 개정작업을 추진하는 한편 금융기관도 이슬람금융 진출 준비를 하고 있으나 종교단체의 반대로 법안통과 지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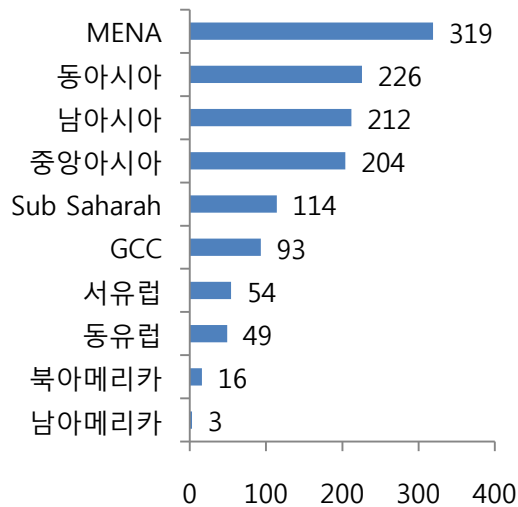
□ 소비시장에서는 할랄식품이 비이슬람권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점차 식품 외 화장품, 의약품까지 할랄시장에 진출하고 있음

○ 할랄식품 시장규모는 2015년 기준 세계 식품시장의 16%인 1조 달러로 추산되며 2020년에는 2.6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국식품연구원)

- 지역별 할랄시장 규모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 아시아 지역이 유럽, 아메리카 지역보다 크고 성장세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인도네시아가 약 2천억 달러로 1위, 이어 터키, 파키스탄 순위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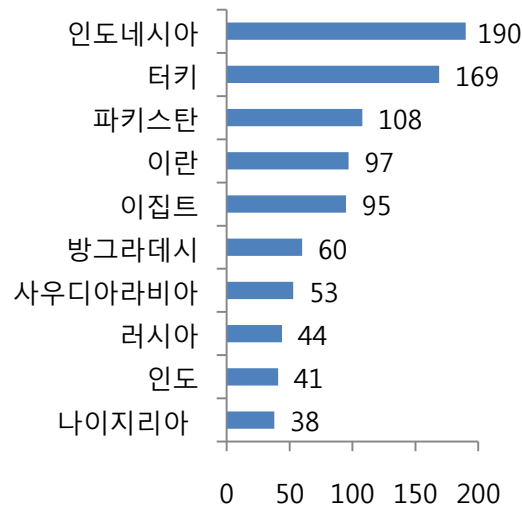
〈표 6〉 권역별 할랄시장 규모(2015)

(10억 달러)



〈표 7〉 국가별 할랄시장 규모(2015)

(10억 달러)



자료: Thomson Reuters, 2015. State of the Global Islamic Economy 2013, 2014-2015

○ 할랄식품은 비이슬람인들에게도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식품으로 알려지면서 전세계로 빠르게 확산

- 현재 할랄시장에 일찍 뛰어든 다국적기업이 전체 할랄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는 네슬레, 코카콜라, 맥도날드, 버거킹 등이 있음
- 한국업체는 120개 업체가 430여 개 품목에 대해 할랄인증을 얻어 해외 할랄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음

□ 경제활동의 이슬람화는 금융, 식품을 넘어 생산, 고용, 유통을 포함하는 경제영역 전반으로 확대될 전망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슬람금융은 상대적 안전자산으로 부상하면서 향후 서구 글로벌 투자자본도 위험 분산을 위한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이슬람금융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000년대 들어 할랄시장은 호텔, 식당, 관광, 스파 등에까지 진출하고 이슬람식 주택단지, 무슬림 노동조합 등도 나타나고 있음
- 앞으로도 이슬람인구의 급증과 확산의 바탕 위에 이방지역 전파를 추구하는 이슬람의 속성상 경제활동의 이슬람화는 시장경제를 보완 또는 일부 대체하면서 계속 확산될 것으로 전망됨

- 다만 샤리아(이슬람 율법) 해석의 국별 차이 등 국제적 표준화 미비, 최근 급진 이슬람 무장단체의 테러 연관 등으로 서방국가내 반이슬람정서 고조 등이 이슬람 경제활동의 비이슬람권 확대 억제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3. 이슬람부흥의 불편한 진실

□ 이슬람화 현상이 이슬람 인구급증과 오일머니를 배경으로 비이슬람권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그 내면에는 여러 가지 한계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 서방국가내 급증한 이슬람 인구는 소수민족의 지위에서 벗어나 정치사회 세력으로 성장하여 주류세력과 문화적 충돌을 일으키고 일부 이슬람 급진 세력은 폭탄테러를 자행하는 등 각종 갈등 유발
 - 1980년대 이후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 유럽 대부분의 국가는 출산율 감소에 의한 국내 신규노동력 공급이 감소하자 외국노동력 유입을 위해 이민 문호를 대폭 확대
 - 2000년대 이후 유럽은 이슬람이민자들과 문화적 갈등이 표출되었고 급기야는 자생적 테러리스트까지 등장하자 그 동안 유지되어 왔던 다문화사회 및 이민개방 정책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로 방향 선회
 - 프랑스의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프랑스내 이슬람이 아닌 프랑스식 이슬람이어야 한다(2011)”며 이슬람인들의 진정한 동화를 강조하면서 프랑스의 가치를 이슬람인들에게 가르치는 프로그램 시행
 - 이에 대해 이슬람단체들이 이슬람 고유의 문화를 인정해야 한다고 반발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극단 무장세력이 집단테러를 일으키면서 이슬람 포비아(혐오증)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음
- 2000년대 이후 고유가 현상으로 이슬람금융 자산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거래가 이슬람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제도 미비와 이에 따른 리스크로 일반금융자산보다 그 규모가 작음
 - 이슬람금융의 기본원리를 제공하는 샤리아 해석의 국제적 표준화 미비, 지나친 종교적 성향으로 인한 금융거래의 유연성 부족, 상품 종류 및 서비스의 다양성 부족 등의 문제점 내재
 - 이에 따라 전세계 금융자산 중 이슬람금융은 1%에 불과하며 전세계 이슬람 인구 중 이슬람금융 이용 인구는 12%에 불과

- 이슬람금융 상품 중 가장 주목받고 있는 수쿡도 비이슬람 국가에서 발행한 경우는 전무하며 수쿡 유통시장 미비로 말레이시아에서만 유통이 가능
- 무이자 원칙의 기반인 꾸란의 정교일치사상에 대한 반발과 수익성 제일주의 배제 등 반시장경제 가치관과 이슬람의 폭력성이 이슬람 금융시스템 채택에 한계요인으로 작용
 - 이슬람금융 기관은 샤리아 전문가들로 구성된 감독기관인 샤리아 금융위원회를 두기 위한 제도정비가 수반되어야 하는데, 정교분리를 원칙으로 하는 비이슬람 국가에서 이를 수용하는데 많은 저항이 따르고 있음
 - 무엇보다 화폐의 보장가치 또는 시간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이자금지 원칙은 수익성을 제일원리로 하는 시장경제 시스템에 익숙한 일반인들에게 이슬람금융 선택을 가로막는 주요한 장애요인임
 - 또한 이슬람 무장단체들의 테러가 빈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슬람금융의 도입은 자칫 테러자금으로 유입될 통로를 열어준다는 우려도 고조되고 있음
- 분배의 공정성 측면에서 이론상 이슬람 경제시스템이 시장경제보다 우위에 있다고 평가받고 있으나 실제 이슬람권 국가가 비이슬람 국가보다 소득불평등 수준이 낮다고 볼 수 없음
 - 이슬람금융에서는 금융거래시 차입자와 대출자가 위험공유를 통한 공평성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이슬람금융이 서구식 일반금융보다 우위에 있다고 인정되고 있음
 - 이슬람금융에서는 이자를 자본가의 무노동 수익으로 보고 실물거래를 동반하여 수익을 배분하기 때문에 자본가로 부의 집중을 막아 자카트(Zakat)와 함께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한다고 주장
 - 그러나 유사한 소득수준의 이슬람권 국가와 비이슬람권 국가를 비교해보면 이슬람권 국가가 비이슬람권 국가보다 소득불평등도가 낮다고 볼 수 없음
 - 이슬람권과 비이슬람권 모두 대체적으로 소득이 높은 국가일수록 지니계수가 높아 소득불평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유사한 소득수준간에 이슬람국가와 비이슬람국가를 비교해 보면 일정한 규칙이 나타나지 않고 있음 (표 8의 노란색 표시)
 - 실제 중동의 이슬람 산유국의 경우 오히려 일부 특권층에 의한 부의 독식과 세습으로 빈부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표 8〉 이슬람권과 비이슬람권의 지니계수 비교 (2005~2010평균)

(인당 GDP: US\$)

이슬람권			비이슬람권		
국가명	인당 GDP(PPP)	지니계수	국가명	인당 GDP(PPP)	지니계수
말레이시아	20,621	46.2	러시아	22,505	40.1
이란	16,446	38.3	태국	12,775	39.4
인도네시아	7,819	38.1	중국	7,879	42.1
파키스탄	4,287	30.8	베트남	4,085	35.6
우즈베키스탄	3,229	36.7	인도	3,828	33.9

자료: UNDP, Statistical Yearbook for Asia and the Pacific 2014

4. 시사점

□ 이슬람의 부흥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이슬람 지역에서의 사업결정은 신중한 접근방법 필요

- 이슬람지역 사업은 이슬람 경제시스템의 제도적 미비와 정치경제적 불안으로 각종 리스크에 노출
- 샤리아의 기본원칙인 정교일치를 내세워 이슬람 정부가 일방적으로 계약변경 등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도 예상됨

□ 이슬람지역에서의 사업성공을 위해 이슬람 전문가를 영입 또는 육성해야 할 뿐 아니라 진출국가 내에 우호세력도 구축해야 함

- 단기적으로는 현지에서 사업경험이 있는 현지교민 또는 현지인 중에 정부고위층과 친분이 두텁고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를 영입하고 장기적으로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사람을 선발하여 육성
- 현지의 이슬람지도자 또는 이슬람단체의 높은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감안하여 한국 기업을 대변할 수 있는 유력한 이슬람 지도자들과 인적 네트워크 구축

□ 사업관련 일반법 외에 샤리아 규정을 철저하게 검토함은 물론 문제

발생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샤리아 해석의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운영과정에서 샤리아 위반을 둘러싼 논란 발생 가능성
- 중동 이슬람은 동남아보다 샤리아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샤리아 위반 시 처벌도 매우 무거울 수 있음

□ 출혈경쟁을 피하고 리스크 분산을 위해 외국 유망기업과 JV를 통한 진출 모색

- 전통적으로 중동 및 이슬람시장에 강한 유럽 업체와 전략적 제휴를 통한 진출로 취약한 정보력을 보완하고 리스크 분산
- 삼성엔지니어링은 이탈리아 Tenchnimont와 합작으로 UAE 유화 플랜트를 건설하였으며, 대우조선해양은 전문설계 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영국 Petro Fack과 JV를 설립하여 UAE 진출

이 자료에 나타난 내용은 포스코경영연구원의 공식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보고서/논문]

- 김종도, 안정국, “이슬람 경제정의와 호모이슬라미쿠스에 관한 연구”, 중동연구, 31권 2호, pp.133-155, 2012
- 김종일, “최근 중동 이슬람 종파갈등 연구”, Mission and Technology, 38, pp.47-85, 2016
- 김중관, 이종화, 통갈릭, 안정국, “윤리적 가치체계 측면의 이슬람경제에 대한 분석”, 한국중동학회논총, 32권 3호, pp.113-141, 2012
- 김중관, “이슬람 경제사상의 원리와 경제정의의 개념”, 한국이슬람학회 논총, 제19-3집, pp.87-104, 2009
- _____, “자카트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해석”, 한국이슬람학회 논총, 제14-2집, pp.209-222, 2004
- 국제금융연구원, “최근 이슬람금융의 성장현황”, 주간금융브리프, 15권 14호, pp.18-19, 2006
- 농산물유통공사, “할랄식품 시장조사”, 2011
- 손주영, “이슬람에서 말하는 유대교와 기독교”, 종교학보, 3집 pp.5-54, 2007
- _____, “이슬람부흥주의와 이데올로기화”, 한국이슬람학회논총, pp.1-31, 2000
- 엄한진, “아랍세계 논의의 특징과 오리엔탈리즘적 전통”, 아시아리뷰, 제1권 제1호 pp.171-195, 2011
- 엄한진, “왜곡된 근대화 산물로서의 이슬람 근본주의”, 종교연구 29, pp.147-167, 2002
- 윤용선, “종교적 경제윤리와 자본주의의 비판적 성찰”, 서양사학연구, 30집, pp.183-214, 2014
-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위기 후 새롭게 주목받는 이슬람금융”, Zoom-in, 2009-24호, 2009
- 장병욱, “이슬람 원리주의와 테러리즘”, 한국중동학회논총, 23-1호, pp.1~22, 2002
- 장훈태, “기독교와 이슬람의 갈등”, 선교와 신학, 27집, pp.145-173, 2010
- 전제성, 김형준, “경제활동의 이슬람화”, 세계 지역연구논총 32집 1호, pp.62-88, 2012
- 한국은행, “이슬람 금융의 최근 동향 및 전망, 국제경제정보, 제2011-17호, 2011
- 황의갑, “이슬람에서의 종교와 정치”, 종교문화학보, 제9집, pp.115-137, 2012
- Abdul Azim Islahi, “The Genesis of Islamic Economics” Revisited, Islamic Economic Studies, Vol.23, No.2, pp.1~28, November 2015
- Necati Aydin, “Redefining Islamic Economics as a New Economic Paradigm”, Islamic

Economic Studies, Vol. 21, No.1, pp.1-34, June 2013

Pew ResearchCenter, “The Future of World Religions: Population Growth Projections, 2010-2050”, Religion & Public Life, 2015

Volker Nienhaus, “Fundamentals of an Islamic Economic System Compared to the Social Market Economy”, Kas International Reports, pp.75-96, 2010

[서적]

김대옥, 전병희 역, 무슬림의 생활지침서 하디스를 읽다, 죠이선교회, 2014

김한수 외, 이슬람금융의 현황과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2012

김용선, 코란(꾸란), 명문당, 2013

박대창 외, 이슬람경제의 이해: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2011

양승윤 외, 동남아의 이슬람,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7

이충열 외, 이슬람금융: 이론과 현실 및 활용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

최영길, 아랍에서 출발한 이슬람역사와 문화, 세창출판사, 2014

최영길, 성 꾸란 (The Bible Quran in the Korean Language), 파하드 국왕 꾸란 출판청, 2013

Islamic Financial Services Board, Islamic Financial Services Industry, Stability Report 2015, 2015

TheCityUK, The UK: Leading Western Center for Islamic Finance, The UK Islamic Finance Market, 2015

[홈페이지]

National Consortium for the Study of Terrorism and Responses to Terrorism, . Umd. edu